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방안 - 비영어권 유학생 중심 -

김 경 수 |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해 특화된 교육상품을 개발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공감하여 대학과 함께 유기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I.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

요즘 국내 대학들은 대학 발전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국제화·세계화'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 대학들 간의 경쟁에서 세계 대학들과 경쟁으로 시야를 넓혀야 비로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평가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의 세계화 핵심 과제이며, 한국 고등교육의 내적 제약 요인을 극복하여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현 시점에서 국내 대학의 핵심 과제임

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학생유치가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 대입정원 미달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에는 대학의 정원대비 17만 명의 수험생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등록금으로 대학 재정을 충당하는 국내 대학은 재정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들은 정원조정과 같은 몸집 줄이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국의 대학들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을 대학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 가운데 발 빠르게 앞장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을 편 일부대학은 투자에 대한 손익 분기점을 넘어 수익구조 단계로 접어들기도 한다. 둘째,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대학의 연구실에 연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연구실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학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향후 국내에서의 연구 인력 수급이 불투명하다면,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유학생의 연구 성과로 학문의 질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대규모 유치는 국제화된 대학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여 우수 내국인 학생 유치에 유리하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우수한 신입생 확보는 현재 모든 국내 대학들의 최대의 관심거리이다. 요즘 대학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들은 과거와 달리 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부터 국제교육이 잘 갖추어진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유학생과 더불어 대학생활을 하며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효과를 국내에서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화된 대학이라는 점은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큰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이다.

II.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과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전국적으로 2000년 6,160명에서 2001년 11,64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2010년 50,000명 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03년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재학

인원이 12,312명인 사실은 세계경제력 12위의 국가적 위상으로 볼 때 너무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인근 국가의 예를 들면 2003년 일본 11만 명, 중국 8만 5천명의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교육의 강국인 미국이 58만 명, 프랑스가 30만 명으로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1983년에 10,428명으로 현재의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으로 현재 우리의 약 10배의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행히 국내 대학들도 늦으나마 2001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 하에 해외박람회 참가와 같은 해외 마케팅에 눈을 돌리고 다각적인 학생 유치사업을 펴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순으로 외국인 학생의 분포가 아시아 대륙에서 거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적인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유학은 국내의 여러 교육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영어권 국가에서의 대규모 유학생 유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국내 각 대학마다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MBA 과정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어권 학생을 유치하는 대학도 필요할 것이고,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을 목표로 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도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85%의 아시아지역 유학생들에게 영어전용강좌와 같

은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것인데 현재 교육인적 자원부의 국제화 부분의 대학별 평가에 있어서나 각 대학들의 국제화 노력에 있어서 영어전용강좌의 확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유학생이나 동구권 학생들은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대에 따라 취업을 고려한 유학, 즉 한국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중간 관리자로서 현지인을 채용하려는 추세에 있고 현지인 가운데에서도 우리말이 유창하고, 한국의 기업문화와 전반적인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비영어권 학생들은 국내의 대학에 유학 와서 한국대학생과 함께 전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류기간 동안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들은 이러한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이들이 전공 지식을 충분히 얻고 귀국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과 함께 한국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같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매우 경쟁력 있는 상품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비영어권 유학생의 비율이 높고 유학생 유치정책도 비영어권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상경, 관광, 공학 계열과 같이 수요가 많은 학과 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화를 해외 마케팅 시장에서 본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의 유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즉 입국 후에 그들이 어떻게 유학목적을 달성

하고 생활상에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심한 배려로써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다. 외국의 중등교육과정이 우리와는 상이하고 또한 언어 장벽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대학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까지 국내의 대학들은 국제화 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우선 정책 중의 하나가 영어전용강좌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견해가 국내 학생의 국제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육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재의 유학 수요자들의 유학동기와 지역별 유학 수요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오히려 동양권과 북유럽과 같은 실질적인 유학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국내 대학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Ⅲ.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중요성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해 오는 마케팅이 중요한 것만큼 이들 학생이 본국에서와 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외국인 학생이 불법취업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역할 수행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궁극적으로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국내에서 교육시키면서 성공적인 유학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유학생 관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치사업은 한국대학들이 갖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며, 유치사업을 펴려는 여러 국가 중에 중국학생 및 동남아학생의 유치는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유학 상품을 잘 포장하여 광고한다고 해서 질 높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체계화된 유학생 관리시스템, 특화된 프로그램 내용, 훌륭한 시설과 같은 내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유학 상품을 이미 구매한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그들로부터 그 대학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Ⅳ.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방안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마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유학생들의 생활 및 학사지도를 수행하는 유학생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은 몇 가지 한양대학교의 예를 들어 유학생 관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1. 학사관리

한양대학교의 경우 전체 외국인 학생 중 43%가 중국학생이고, 23%가 일본학생으로 국가적인 국적별 통계와 비슷한 분포를 갖고

있다. 모든 외국인 학생은 매 학기 1회 이상 전문적인 외국인 상담지도교수의 상담을 통하여 학업 또는 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한 사항에 관한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별로 외국인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고충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중국학생 중에는 제 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워 기본적인 수학적능력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

또한 동남아학생들은 대다수 공과계열의 학과에서 수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등과정의 수준 차이로 인해 수학이나 물리에 관한 기초가 부족하여 학과의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영어와 수학은 중등과정의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만 국내 대학에서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있으므로 이를 학생 개인의 몫으로 내버려두는 것은 학교 측의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비정규 과정으로 기초 영어·수학 과정을 한국학생의 자원봉사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수업은 교내의 재학생들이 외국인학생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외국인학생들의 학업 상에 겪고 있는 고충을 제도권에서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향후 중국학생의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 1학년 과정 중에 상반기는 상경계열과 같은 수요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국내 각 대학마다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공 지식을 충분히 얻고 귀국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과 함께 한국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같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매우 경쟁력 있는 상품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많은 학과에 중국어로 전공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말이 서투른 중국학생이 쉽게 전공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 학생들과는 달리 학사지도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적절한 학사지도를 통해 학업 부적응으로 인한 불법취업과 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보험의 의무화

의료보험은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국내 대학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유학생 관리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외국대학의 사례로 살펴보면 의료보험증 보유여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반드시 필수적인 서류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대학들은 현재 학생을 유치하는데 급급하여 의료보험 문제를 간과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대다수가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 국가의 유학생으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소속 국내 대학들이 그 경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거나 일부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유학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 대비한 의료보험 문제와 같은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이다.

3. 장학제도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유치 시에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감면하

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입학 후에 성적에 따라 장학금으로 환원해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국내의 모든 대학이 일정부분 등록금을 감면한다면 한국대학의 등록금은 저평가된 상태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당연시되어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외국인 학생의 장학비율이 약 45%정도로 외국인 학생의 유학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입학 시 일률적인 등록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학 후 학과 성적과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과의 성적장학금은 내국인 학생과의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학생이 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학업에 충실하면 여러 장학금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동기부여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에 몰두하게 되고, 일부는 내국인 학생을 제치고 학과 내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국내 대학들 중에 입학 시에 일률적인 등록금 감면정책을 갖고 있는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고등교육의 가치를 저평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4. 휴학·복학 및 불법취업 관리

대학은 매학기 외국인 학생의 휴학 및 복학을 포함하여 재학 현황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은 일선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책임을 갖게 되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류

함으로써 외국인학생이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석에 불성실하거나 휴학을 하고 유학을 불법취업의 도구로 이용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한국대학에서는 유학을 가장한 불법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통계를 보면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취업을 하는 외국인 학생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선 대학에서의 철저한 외국인 학생 관리와 출입국사무소의 적절한 출입국관리 정책이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5. 국내 체류관련 비자서비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국하기 전부터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수많은 국내 체류에 관한 출입국 관련 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우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한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대학별로 비자발급 문제를 대학차원에서 해결해주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치부하는 대학도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과 불

법취업을 우려하여 비자발급을 제한하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상충되어 실제적으로 유학 목적을 갖고 모든 입국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대학에서 판단하여 입학허가를 내준 학생조차도 비자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유학생 유치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법무부와 대학이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대학에서는 최대한 노력하여 외국인 학생이 불법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대학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유연성 있게 비자발급을 허가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 발급, 비자연장, 시간제 취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출입국 행정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절하게 안내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법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6. 외국인 유학생 숙소 운영

설문조사를 해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결심하고 난 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첫째가 프로그램 내용이고 둘째는 숙소 문제이다. 물론 물가, 음식, 언어, 시설 등의 여러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지만 숙소

단순히 유학 상품을 잘 포장하여
광고한다고 해서 질 높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체계화된 유학생 관리시스템,
특화된 프로그램 내용, 훌륭한 시설과
같은 내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유학 상품을 이미 구매한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그들로부터 그 대학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에 대한 부분이 유학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만한 교내의 숙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다. 교외의 숙소는 하숙, 자취,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언어의 도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숙사와 같은 내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학생을 수용한다면 외국인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대학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외국인 기숙사 신축시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인근 대학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기숙사를 교외에 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숙소에서 각국의 외국인 학생들은 서로 다른 문화가 융화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외국인 학생간의 문화적인 충돌로 학업 및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대학 측의 이국 문화에 대한 적절한 사전교육을 실시가 요청되며, 특히 한국에서의 유학 초반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오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은 고등교육기관만의 당면 과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공감하여 대학과 함께 유기적으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현실에 바탕을 둔 과감한 유학정책 수립과 재정투자 그리고 법무부의 합리적인 출입국 행정을 기대하며, 인턴십과 같은 기업과 대학의 연계시스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또한 한국 대학들이 대규모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상품의 포장과 같은 해외 마케팅의 강화에도 투자를 해야 하지만, 유학생 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한 대학의 진정한 홍보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입소문으로 시작됨을 대학들은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들의 천편일률적인 교육내용 만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목표하고 있는 2010년의 50,000명 외국인 학생 유치는 불가능하다.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을 위해 특화된 교육상품을 개발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질 때 정부와 대학이 추구하는 국제교육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

김경수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보건전문대 강사, 대우 고등기술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에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외국인 초청관련 출입국제도", "중국학생 리쿠루팅", "외국인 유학생 관리", "교환학생 초청 및 파견 관리방안" 등이 있다.